

4) 순천공립농업학교

이 학교는 육영정신이 투철한 우석 김종익의 회사금으로 설립된 여러 학교 중의 하나이다. 1935년 4월 22일 조선총독부로부터 3년제 공립농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동년 5월 15일 개교하였다. 조선공립실업학교 교유(교사) 정전말희(井田末喜)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교사 2명, 직원 1명, 기타 약간의 고용인으로 구성되었다. 개교 후 가교사로 순천공립보통학교(현재 순천남교)부설 농업실수학교에서 수업을 하였고, 1936년 1월 현 교사(현재 순천대학교)로 이전하였다. 모집정원은 50명에 불과해 입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1938년 4월 15일 학칙을 개정하여 5년제(정원 250명)로 발전하였고, 1942년에는 4년제로 개편되었다.

1930년대는 일제가 조선인을 총량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이 강화되던 해였다. 그 당시 순천지역에는 초등교육기관만 있을 뿐이고 매산학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했던 때였다. 그래서 자녀들은 대부분 서당이나 소학교 정도의 교육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등학교 진학은 경제적 사정으로 지주나 일본인에게만 해당될 뿐이었다. 이러한 형편으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자제들을 중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래서 유지들이 이 지역사회에 알맞은 농업계 중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유지들의 주선으로 교육구국운동을 평소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던 김종익의 회사금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되었다. 그 당시 순천은 인구 2만의 호남 동부지역의 요지로서 광주 다음가는 도시였다.

개교 초기에는 교원 부족뿐만 아니라 신설학교인 관계로 부지 및 실습지의 경지정리·구획정리·수리시설 등 공사장에서 노동력을 중일 제공하는 작업이 많았다. 따라서 일반 교과수업은 교사 부족으로 농업계 교사가 맡았기 때문에 충실한 수업이 되지 못했으며 그것마저 잘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군사훈련(교련)은 중요한 학교활동이었으며 1주일에 2일은 전 교직원과 학생이 제식훈련체제로 도열하여 조회를 하였다. 초창기의 운동부로는 축구부·씨름부·육상부를 두어 체육활동을 하였으나, 중일전쟁 이후에는 스포츠도 실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7년 황국신민선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강제로 외우게 했으며 제반 행사나 교과시간에 이를 반영하였다. 선서내용은 첫째,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둘째,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셋째,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한 강한 국민이 되겠다. 1938년의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바꾸어 가급적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실제로 금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면 정학시키거나 품행에 병을 주기도 하는 악랄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한국말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창씨개명제도를 선포하여 무력적으로 위압하였다. 전국에 애국반을 조직하여 전 조선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했다. 학교는 이 행사의 선봉역할을 할 것을 요구당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폐교, 학생은 퇴학당하였다. 각 학교에는 봉안전을 두고 등·하교시 누구나 그 앞을 통과할 때 정지경례를 하도록 했다.

1938년에는 육군특별지원제도를 발표하여 '반도인에게 부여한 영예스러운 제국군인'의 명목으로 17세 이상의 한국인 청년들을 지원이란 명목으로 강제로 소집해갔으며, 1941년에는 학생생도의 집단근로동원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시켰다. 당시 순천농업학교 학생도 광주비행장 건설현장에 동원, 여수 신월리 육군병원 건설작업에 집단

동원됐으며, 징병연령이 되는 학생들은 여지없이 소집에 응해야 했다. 이무렵의 학교교육은 전력증강, 전시생산총력 등의 중일실습이나 군사훈련에 시종일관 역점을 두었다. 이외에 일제는 우리의 민족교육,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황국신민체조·궁성요배·신사참배 등의 잡다한 학교활동을 시행하였다.

조선교육령의 3대 강령인 국체명징·내선일체·인고단련의 강화정책으로 촌각의 틈도 주지 않는 악랄한 식민지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당시 교육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순천농업학교의 행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천농업학교는 1935년에 설립되어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10년 동안에 세 차례의 학제변화로 인하여 3년제(1935~1938), 5년제(1938~1943), 4년제(1943~1946)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3·5·4년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통과목은 수신·공민과·국어(일어)·수학·영어·물리·화학·박물·지리·역사·체조였다. 일어를 생활화하는 국어와 군국주의정신을 강조하는 체조는 다른 교과보다 중요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3·5·4년제에 관계없이 졸업할 때까지 주당 각각 3시간씩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

조선어는 교육과정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그것은 민족의 얼을 말살하려는 것이었고, 또한 수신·국어·역사·지리 등은 왜곡되고 과장된 일본정신을 주입하는 황민화 교육의 기본과목이었다. 4·5년제에는 초기의 3년제에 편성되지 않은 도화와 음악이 교양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5년제에서는 외국어 교과에 영어와 중국어가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과목은 작물·원예·축산·임업·양잠·농업경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수단위의 시수에 차이가 있었다.

순천농업학교의 월중행사

훈련요목	실시일	지도내용
신전조회	매주 월·토	조국(肇國)정신의 선양, 정좌, 대마(大麻)의 예배이레이박수(禮拜二禮二拍手), 황국신민의 선서제창과 훈화
교련조회	매주 수	규율의 엄정, 복종심의 함양, 용맹심의 환기, 형(形)부터 마음으로의 훈(訓)
보통조회	매주 수·목·금	궁성요배, 고향예배, 황국신민의 선서제창과 훈화, 조회 체조
신사참배	매월 1·15일	경신존숭의 관념 함양, 미화작업, 동포상애, 근무단련, 국민으로서 자각, 봉공의 적성(赤誠)실천
조서봉독	매월 10일	국민정신 진흥에 관한 조서봉독식 거행, 국민정신 진흥강조
국기계양식	사대절(四大節), 매월 1·10·15일	황국신민으로서의 관념강화, 국민정신의 작업, 현재와 미래의 활동 및 자각
국어사용의 철저	상 시	국어사용에 의한 단체관념, 황국신민의 자각, 일본정신에 의한 일체의 사상감정의 순화
시국강화	매 조회 10분 이내	직원 윤변으로 시간의 인식, 국민정신작흥의 철저를 주로 하는 주보·신문을 교재로 이용
무 도	매주 수·토	일본정신의 함양, 체위보건위생의 향상
건국체조 및 황국신민체조	매 조회시	황국신민의 자각, 일본정신의 함양, 체위의 향상
복장검사	매주 수·수시	복장단정, 규율엄수, 준법정신의 함양
국방헌금 및 황군위문	매월 1일	황국신민의 임무수행, 화협일치봉공의 적성, 인고단련 위문문 발송, 출전군인 가족위문
회 식	매주 월·토	직원생도의 회식,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전 직원은 기숙사 식당에서 생활개선, 사회적 교양
숙 제	월 2회	황국신민으로서의 반성음미, 자각발분의 기회 황국위문문 발송
주 훈	매주 월 발표	생도의 기풍진작, 덕조(德操)의 함양, 생활개선 규율엄수 철저

출전 : 한국교육사연구회, 『한국교육사』, 교육출판사, 1981, 344쪽.

